

# ‘활주로 활용’ 입장차 첨예... 시계 제로

### 20일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주제 끝장토론 종료 제주도의회 갈등특위 도민 의견 수렴 추진 힘모 예고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 앞서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이라는 핵심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심층토론회가 결국 갈등을 매듭짓지 못하고 종료됐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올해 수차례 이뤄진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지속적으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갈등특위)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의견 수렴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특위는 19~20일 제주MBC 공개홀에서 총 8시간에 걸쳐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가 제안한 현 제주공항 확충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들간 이뤄진 이번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현 제주공항 장래 수요, 보조활주로 활용, 기상 조건, 첨단관제시스템 도입 등이었다.

토론회를 종합해 보면 국토교통부 측은 국민 안전문제의 우려로 현 제주공항의 확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60% 이상이 2000m, 3000m 이상 활주로의 길이를 요구하는데 1900m의 보조활주로를 활용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또한 보조활주로를 바다방향으로 600m확장할 경우 환경훼손 우려와 설령 확장이 되더라도 활주로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ADPI가 권고한 기존 공항 활용방안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테스트포스(T/F) 검토를 거쳐 19개 개선방안 중 15개 방안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평행항로 신설과 교차활주로 운영 등 4개는 제주공항의 여건상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현재 제주공항에는 동서 활주로(3180m)와 보조활주로는 남쪽 활주로(1900m)가 있는데, 이중 또한 남쪽 활주로를 연장할 경우 수용력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조활주로를 활용할 경우 현 제주

공항의 수용력을 크게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측에서 활주로 확장과 관련 제기한 환경 훼손 등의 우려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시에는 더욱 큰 환경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 측은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의 쟁점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고수하며 토론회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특위는 이번 심층토론회 이후 도민 의견수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의회 갈등특위의 활동이 오는 12월 종료됨에 따라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이번 심층토론회에서 마저 결론내지 못하는 등 향후 도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방식과 주제 선정을 놓고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코로나19 따른 제주형 의정활동 지원 필요”

### 오영희, 비대면·도민참여 주문



오영희 의원

오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도록 본회의 및 상임위의 물론 각종 토론회와 도민참여 프로그램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 예산 편성을 통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줌(ZOOM) 등 영상회의의 활용법에 대한 자체교육 등 원활한 의정활동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주형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2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돼 공공기관 및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과 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시의회 등 타 시·도의회와 달리 제주도의회는 방청·견학, 도민의방 이용, 각종 토론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등 도의회 의정활동에 도민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연구위원 공석기간 단축을 위한 세밀한 인사행정과 도민공감 확산을 위한 온라인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의회운영위원회 역할 조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공립 JDC 행복어린이집 11월 문 연다

### 장애아·영유아 60명 모집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A23블록)에 오는 11월 공립 JDC 행복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제주시는 21일부터 JDC 행복어린이집에 다닐 장애아와 만 0~5세 영유아 6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 개성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후 시 지역에서 처음 개원하는 공립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45.99㎡ 규모로 보육실, 유희실, 조

리실, 실외놀이터 등을 갖췄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8월 위탁운영자 선정에 이어 9000여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비 등 안전한 아동보육환경을 조성해 왔다. 현재 시 지역에서는 총 364곳의 어린이집이 운영중이다. 이 중 공립 어린이집은 22곳으로 지난해 4곳, 올해 2곳이 확충됐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고품질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0일 제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2차 심층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해양수산분야 투자 대비 성장세 ‘미흡’

### 도의회 정책연구실 보고서 유통 강화·특산어종 필요

제주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어업생산 성장세는 미흡해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됐다. 해양수산분야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혁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이 20일 펴낸 ‘제주해양수산분야(해양수

산연구원 포함) 사업성과 평가’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중 도내 해양수산분야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8.9%였으나 동기간 어업생산량은 연평균 1.2% 증가하는데 그쳤고, 어업생산액은 0.2% 감소했다. 2010년 대비 2019년 제주의 어업 생산량은 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전국의 어업증가율은 31.9% 늘어나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 어업생산력 약화의 주요인으로는 전해양식어업 생산력 부진이 꼽혔다. 2010년 대비 2019년 전국의 전해양식어업 생산량은 75.1%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제주는 9.1% 늘어나는데 그쳤다.

양식어업 부진은 양식어가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채산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2015년 대비 2018년 중 생산성(양식장 입방미터 당 양식어생산량)이

7.6% 감소했지만 생산비용은 오히려 23.4% 상승(2009년 대비 2018년 기준)했다는 것이다.

특히 광어 양식어가의 채산성 약화의 주요인 중 하나인 광어의 높은 폐사율에 대한 개선책이 충분히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지역의 광어 폐사량 비율은 2015년 26%에서 2019년 44.5%로 높아졌다.

정책연구실은 제주어업의 제도약을 위해 ▷생산중심의 어업구조를 가공·유통부문의 외연 확장 ▷제주 특산어종 생산기반 강화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산자원과 유용 어종의 개발 촉진 등을 제안했다. 오은지기자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기념탑·의열사 현충시설 지정

제주도내 최초의 항일운동이자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의 넋을 기린 기념탑·의열사가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청은 시설관리자인 세계유산본부의 현충시설 지정 요청을 받아 지난 8월 국가보훈처에 지정 요청서를 제출한 결과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법정사 승려들을 중심으로 도민과

선도교도 등 약 400여명이 2일 동안 일본에 항거한 무장 항일 운동이다. 일제의 경제적 점탈에 대해 도민의 국권회복 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자, 민족 항일의식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념탑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400여명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으며, ‘항일운동 송치자 66인 형사사건과 수형인 명부’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 관련 기념조각들이 새겨져 있다.

의열사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해 송치된 66명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현재는 초상화들이 전시돼 있다. 오은지기자

소상공인경영아카데미  
행복더하기 마케팅교육 3기

## 즐거로운 마케팅 생활

교육일시 / 2020. 10. 28(수)~10.29(목) 10시~16시

교육대상 / \*선착순 접수  
도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명

교육장소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강의실 (제주시 연복로 33(노명동), 4층)

접수일시 / 2020. 10. 22(목) 0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선착순 접수  
www.jejusc.kr

문의 / 064. 758. 5710~1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교육 내용과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회원가입 필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Jeju Credit Guarantee Foundation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 (내선)전기공사 기능인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구직자 / 재직자 / 영세사업자 등  
- 7개월(09:00~16:00) 성실하게 수료하고 고용보험 취업가능 하신분

교육기간  
근시일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w.com

##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 그랜드보청기

### 호국보훈의달특별할인행사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때행 혜택입니다.\*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상층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무료 청력검사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총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뱅크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